

선교 활동 보고

청년 자원봉사자로서 섬김을 통한 신앙과 열정 탐구

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온 줄리엣 오워와 매기 콜린스는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합니다. 그들은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를 다른 두 명의 청년들과 공유하지만, 그것이 그들이 공유하는 전부는 아닙니다.

케냐 태생으로 가족이 텍사스 러벅에 정착한 줄리엣과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 출신인 매기는 지난 여름 미국 전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신앙에 기반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범교회적 [청년 자원봉사자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ministries/yav/)(YAV)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.

학사 학위를 받고 현재 텍사스 공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줄리엣은 "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. 여기[뉴욕]에 있으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"라고 말합니다.

그녀에게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"뭔가 다른 것"이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.

스스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, 미국과 전 세계에서 불의가 계속되게 만드는 구조를 변혁하고자 하는 줄리엣과 매기 같은 청년들은 미국장로교 [특별 헌금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offering/pentecost/) 네 가지 중 하나인  [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)을 통해 부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.

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아니라, [미국장로교 청소년 수련회](https://presbyterianyouthtriennium.org/)와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인  ["어린이 교육, 세상을 변화시키다"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ministries/compassion-peace-justice/child/) 또한 지원합니다. 이렇게 나누어 지원되는 이 헌금의 특징은 40%를 개별교회들이 보유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자체 사역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. 나머지 60%는  [미국장로교 선교국](https://www.presbyterianmission.org/)의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.

매기는 젊은이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살아가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YAV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

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이 25년 넘게 해 온 것입니다.

매기는 "미국장로교가 청년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.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에 기쁘게 참여해주세요.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,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

줄리엣은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우리도 이에 동의합니다. 우리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주시고, 이곳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 곳곳에,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해 주십시오.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, 큰 힘이 됩니다.

**기도합시다~**

*하나님, 줄리엣과 매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청년 자원 봉사자로 섬기는 모든 젊은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, 배우고,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.***아멘**.